

늘그막에 원고지 만난 어르신들 내친김에 전시회까지

“모평에 시집와서 아들이 핏덩이일 때 혼자 되었네. 그때 내 나이 푸르디풀른 스물여섯”

합평군 해보면 상곡리 상모마을 김윤임(88) 할머니의 자작시 ‘날마다 사립문 열어놓고다.

젊디젊은 20대에 영문도 모르고 숨진 남편을 그리는 마음이 절절하다.

“자다가도 남편이 문 두드리며 찾아올 것만 같아 날마다 사립문 열어놓고…”

홀로 긴 밤을 지새우며 보낸 세월의 슬픔이 행간에 뚝뚝 물어 나온다.

김 할머니를 비롯해 어르신 29명의 애환이 배어 있는 자작시 30편이 합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을 당선나무 숲 일대에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0일간 전시된다.

‘모평 느티나무 숲 무지개 풀렸더니’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화전에서 지난 4월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시들이 전시된다.

합평문화원이 주관한 ‘늘그막, 원고지와 만나

함평 모평마을 할머니·할아버지 자작시로 시화전



합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주민들이 함평문화원이 주관한 글쓰기 교실에서 시작(詩作) 지도를 받고 있다.

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매주 1차례 시를 비롯한 다양한 글쓰기 공부끝에 탄생한 작

품들이다. 이들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 함평문화원과 문

학동인 ‘자미’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한 편의 아름다운 시로 재탄생됐다.

“나는 우리 영감님이 제일 사랑스럽니다”는 김효립(77) 할머니의 부끄러운 사랑 고백부터, 대종손 종부로 한 해에 13차례 제사를 지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어라….”라고 사은은 복도대로 살아야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요”라며 각박한 현 세태를 일깨우는 최묘순(83) 할머니의 춘절살인까지.

전시되는 시들은 어르신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단했던 삶에 대한 애환, 모평마을의 역사와 문화유산들이 듬뿍 담겨 있다.

합평문화원 이진행 원장은 26일 “마을을 가꾸고 지켜 오신 어르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공동체 문화 회복에 기여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에는 어르신들의 시와 편지글, 유언 등 다양한 글을 모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광주전남사진기자회 故박경완 기자 19주기 추모식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나명주)는 26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에서 전·현지 사진기자와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故박경완 기자 19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1991년 무등일보에 입사한 박 기자는 1993년 7월27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를 취재한 뒤 귀사하던 중 해남군 황산면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 동구·코레일 광주관리역 관광업무 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권현대행 김효성)는 26일 3층 상황실에서 총장축제 추진위원회와 김치문화축제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 광주관리역과 총장축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여고 학생·교직원 쌀 모아 소외이웃 기탁



광주여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최근 교내 쌀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쌀 420kg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시 서구 양3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광주시 서구 제공〉

안병호 합평군수
‘지자체와 농협 상생방안’ 특강



안병호 합평군수는 최근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도내 농협조합장과 시·군지부장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농협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3선 축협장을 거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 군수의 현장경험을 들고 싶어하는 농협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특강에서 안 군수는 “지금 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kwangju.co.kr

광주 서구 드림스타트 아동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 체험



광주시 서구는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 및 저소득 자 등 45명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전통예술과 문화를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전주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창의로봇 교실 ▲와글와글 실습교실 ▲드림 항공과학교실 ▲우리 아이 스토리텔링 ▲굿뮤직 리드믹스 등 다양한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편 서구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로봇 교실 ▲와글와글 실습교실 ▲드림 항공과학교실 ▲우리 아이 스토리텔링 ▲굿뮤직 리드믹스 등 다양한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편견 깨고 나눔 실천…‘드림 투게더’ 봉사캠프



장애인과 대학생·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나눔·배움을 실천하는 ‘드림 투게더(Dream Together)’ 봉사캠프가 지난 25일 동신대학교에서 개막됐다.

27일까지 2박3일간 동신대 체육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뇌병변, 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7세~16세 사이의 장애인 50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50명,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50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일상 속에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대학 소속 모든 학과가 전공을 살린 다양한 치료봉사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극기 훈련 등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임상평가, 치료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회봉사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게 된다.

/사회봉사자 chae@

/사진=최현배기자 choi@

전남공동모금회 ‘착한가게’ 300호점 돌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가 300호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호점(여수 자산어보회)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00호점을 돌파한 이후 7개월만이다. 300호점의 주인공은 모두 2억 1800만원이다.

목포 미즈아이병원은 매월 100만원을 전남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게 되며 모금액은 전남 지역에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전남 지역 착한가게는 지난 2009년 43곳,

2010년 113곳, 2011년 63곳, 올해 81곳 등 모두 300곳이 가입했으며, 업종별로는 약국 154곳, 병원·한의원 62곳, 외식업체 54곳, 주유소 9곳 등이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모두 2억 1800만원이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10만원의 성금을 납부한다.

노성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더 많은 자영업자가 함께 동참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독도지킴이 김장훈

‘독도 홍보재단 설립하겠다’



가수 김장훈이 독도 홍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 김장훈은 26일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안에 독도 홍보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가칭 ‘독도랜드’) 조성 및 독도 연구 지원 등을 위한 재단인 ‘독도문화캠프’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독도랜드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사업에 필요한 성금을 받을 때 투명하게 정리하여 재단이 필요할 것 같아 ‘독도문화캠프’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도문화캠프’는 김장훈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진이 운영할 예정이다. 김장훈과 함께 한국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재단은 서울 시내에 조성될 예정인 ‘독도랜드’ 사업을 비롯, 각종 독도 홍보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장훈은 “재단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면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성금이 들어오면 재단에는 10원 한 장 거쳐 가는 일 없이 바로 은행에서 입·출금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 ▲관리본부장 전찬구 ▲수자원사업본부장 김종해 ▲수도사업본부장 한경전 ▲녹색사업본부장 문일법

◇지역(사업)본부장 ▲수도권지역본부장 최병만 ▲강원지역본부장 양해진 ▲경북지역본부장 윤휘식 ▲경인 아라뱃길사업본부장 김재복

◇부서장 ▲홍보실장 오인석 ▲정보관리처장 정진표 ▲녹색도시처장 노명근 ▲아라뱃길사업처장 임성호 ▲부산권관리단장 정성영

건협 광주전남지부 건강증진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최근 담당지사 등 관내 4개 지사에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 농어촌공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류재광(목포 한국병원장)·이은숙씨 아들 한승군 김현구(성광건설 중기대표)·김순덕씨 삼녀 진영양= 29일(일) 낮 12시 30분 현대호텔 목포 컨벤션홀(버스출발 담당 문화회관 오전 10시 20분)

알림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권익옹호센터 062-369-0420(1577-5364).
▲승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등)자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술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센터무료 체험=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 갈등·성인간의 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 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902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재)한국여성인권센터=여성인권센터 062-366-1366, 367-1577, 368-157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견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자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카이동호회 설천클럽 회원=광주시에 거주하는

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 징, 광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교,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시간 0